

文대통령 “5·18 발포 진상·책임 밝히겠다”

1만명이 함께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 ... 눈물과 감동의 5·18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있다. 왼쪽부터 윤장현 광주시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 행진곡’ 작곡자 김종률, 화재단 사무처장,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5·18 37주년 기념식 ... 4년만에 대통령 참석 역대 최대 규모 “광주정신, 촛불혁명으로 부활 ... 5·18정신 헌법 전문에 담겠다”

5·18 관련기사 2·3·4·5·6·7·22면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공식행사로 5·18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참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13년 이후 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묘지 입구인 ‘민주의 문’에서 중간 지점인 ‘추념문’을 거쳐 기념식장까지 걸어 들어왔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이다. 전임 대통령들은 경호상 문제를 고려해 기념식장 바로 옆인 묘지 내 유영봉안소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뒤 내려 몇 걸음만 걸었다. 문 대통령은 ‘민주의 문’에 마련된 방명

록에 ‘가슴에 새겨온 역사 헌법에 새겨 계승하겠다’고 적으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5·18민주화운동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37년 전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다”며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오늘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며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에 광주영령

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헬기사격, 발포의 진상과 책임도 반드시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5·18관련 자료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아내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념사를 경청하며 박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부활했다. 이 노래는 1997년부터 12년간 5·18기념식장에서 ‘제창’됐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합창단이 부르는 ‘합창’으로 격하돼 지역사회의 반발을 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김갑석 전남지사 권한대행,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종률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자, 피우진 보훈처장 등이 참석했다. 또 3·15의거기념사업회, 4·19혁명 단체, 제주 4·3유족회,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도 함께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5·18둥이’의 사부곡에 함께 울어준 文대통령

아버지 여원 김소형씨
기념식 눈물의 추모사
문대통령 무대 올라가
위로해주고 함께 참배
“대통령이 아버지 같아”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포근하고 따뜻해 꼭 끌어 안았습니다.”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1980년 5월 18일 태어난 지 3일만에 아버지를 여원 김소형(여·37)씨와 문재인 대통령의 ‘눈물의 포옹’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씨에게 진심을 전했고, 김씨는 그런 대통령에게 그동안의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에 국가보훈처로부터 추모사 낭독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된 끝에 승낙했고 이날 기념식에서 추모사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얼굴도 보지 못한 아버지를 향한 그녀의 목소리는 곧 떨리기 시작했고, 장내는 숙연해졌다.

“아버지, 당신이 제게 사람이었음을 당신을 비롯한 37년 전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걸어갈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 주셨음을...사랑합니다 아버지” 문 대통령은 계속 흐르던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김씨를 위로했다. 김씨는 “문 대통령을 TV에서만 보다 실제로는 처음으로 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고 광주일보에 문 대통령을 안은 느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품 안에서 흐느끼던 그녀를 안아주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은 5·18 희생자 김재평씨의 딸 소형씨에게 다가가 포옹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서 “너무 많이 울었다. 그만 올라”며 “잠시 후 같이 아빠 묘소에 참배하러 가자”고 위로했다. 기념식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약속대로 김씨와 함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김씨의 아버지인 재평(당시 29세)씨는 완도 수협에서 근무하다 첫 딸의 탄생 소식을 듣고 1980년 5월 18일 광주로 향했다.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인근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딸과 대면한 그는 아내, 딸과 함께 4일 뒤인 5월 22일 서구 쌍촌동 천적집에서 지내다가 같은 날 오후 5시50분경 낱아온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해남 [新] 프리미엄

101스퀘어 상가분양·임대

확실한 선택!!

해남 101스퀘어

해남 [중심사거리] 누구나 탐내지만 모두가 가질수 없는 해남 중심! 새롭게 부상하는 그 곳, 황금알을 낳는 해남군청 중심상권만의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해남군청 바로 앞! [구. 광주은행 해남점]

해남의 중심에서 성공을 독점하다!

광역접근성

전남지역 서남부권(완도, 진도, 강진, 해남)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행정교육의 중심

군청, 법원, 세무서 모든 행정을 품은 위치! 해남고, 해남공업고, 해남중, 해남제일중, 해남초의 배후 교육 중심지!

복합 테마상가

푸드, 의료, 의료, 미용, 학원, 법조학원 등 다양한 복합 테마상가! 폭발적인 인구증가 및 유동

안정된 수익

초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투자상품! 안정된 임대수익으로 대체불가 상품! 두번다지 없을 [新] 프리미엄 기대!

분양 임대 1577-1901

시행

1주금상

시공

진보종합건설(주)

※ 본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임과, ※ 본 홍보물에 기재된 개발계획 등은 해당 기간 및 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사업자와 무관합니다.